

# 광주 집단감염 요양병원 정부 현장대응팀 급파

### 市, 식당·카페 등 방역수칙 위반 고발·과태료 조치 道, 백신 접종 추진단 구성 등 사전준비작업 ‘착착’

광주 광산구 한 요양병원에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 것과 관련, 정부가 긴급 현장대응팀을 파견하고 환자들을 전원 조치했다.

최근 확산세가 주춤하고 있는 전남도는 코로나19 백신을 내달 말 공급하겠다는 정부 대책에 발맞춰 사전 준비에 착수했다.

광주시는 6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가 코로나19 집단감염이 연쇄 발생한 광주 효정요양병원에 긴급현장대응팀을 파견해 환자들을 전원 조치했다”고 밝혔다.

중대본은 이날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학원·교습소 방역관리 방안 등을 논의했다.

중대본은 광주 효정요양병원에 긴급 현장대응팀을 보내 확진자 58명을 전원 조치했다.

앞서 시는 요양병원 확진자의 경우 고령인대다와 병환자가 다수여서 지난 4일 광주 북구 일곡동 해아림요양병원을 돌봄 인력을 갖춘 감염병 전담 요양병원으로 지정했다. 7일 오후부터 운영에 들어갈 방침이다.

또한 광주시는 방역수칙 위반이 적발된 시설에 대해 고발·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진행 중이다. 고발 84건, 과태료 101건 등 총 185건으로, 이중 식당·카페가

92건으로 가장 많았고 유흥시설이 43건, 자가격리 위반이 33건 등이다.

고발대상 84건 중 83건은 고발조치 완료하고 소주방 1건에 대해서는 고발 검토 중이다.

과태료 부과대상 101건 중 36건은 부과조치 완료했으며, 유흥시설 3건, 식당·카페 62건 등 총 65건에 대해서는 관련 서류 검토, 사전통지 등 사전 행정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전남도에 따르면 내달 말 백신이 도착하는 순간부터 보관, 콜드체인 운송, 접종방법, 사후관리 등 전 과정을 종합한

세부 접종계획을 세워 차질 없이 준비할 계획이다.

또한 접종기관 지정·운영과 접종인력 확보, 접종 교육·훈련, 접종 후 이상 반응 감시 등을 위해 의료 전문가를 포함한 ‘코로나19 백신접종 추진단’을 전남도와 시·군이 각각 구성해 운영하기로 했다.

백신접종은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고위험 의료기관 종사자를 비롯 집단시설 어르신·종사자, 성인 만성 질환자, 소아 및 청소년 교육·보육시설 종사자 등을 우선 접종 권장 대상으로 정해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특히 백신 관리에 따른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엄격한 냉동보관과 전처리 가능한 접종기관을 확보하는 등 철저한 사전 준비를 거쳐 접종에 들어갈 예정이다.

강영구 전남도 보건복지국장은 “코로나19 백신 접종계획을 빈틈없이 준비해 신속하고 안전하게 접종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더불어 코로나19 지역감염이 확산되지 않도록 방역역량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정겨울·임우성기자



신축년 새해 행복하세요 2021 신축년을 맞아 6일 오후 광주 북구청청정어린이집에서 교사와 원생들이 코로나19 종식과 새해에는 뜻하는 바 모두 이루시고, 행복한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하면서 투명 아크릴판에 소그림을 색칠하고 있다. /김영민기자

## ‘전남행복지역화폐’ 조기 발행한다

### 6월까지 1조원 전액...소상공인·가정경제 1석2조 효과

전남도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소비 위축으로 어려운 도내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전남행복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의 조기 발행을 추진한다.

전남도는 오는 3월까지 5천억원, 6월 말까지 1조원 전액 발행을 목표로 추진하며 이를 달성할 경우 골목상권에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를 위해 올해 452억원의 국·도비 지원금 전액을 시·군에 조기 지급하고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을 독려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기관·단체들과 구매 릴레이 운동

·협약을 추진하고 각종 지원수당과 연계한 정책적인 발행도 확대할 방침이다.

민선 7기 김영록 지사 공약사항인 ‘전남행복지역화폐’는 지역 자본의 역의 유출을 막고 대형마트와 대기업 직영매장이 아닌 동네 상점, 전통시장 등에서 사용이 가능해 지역 내 소비를 활성화하는 경제적 효과가 크다.

특히 코로나19에 따른 경기침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최근 주목받고 있으며 중앙정부에서도 적극 권장하고 있다.

‘전남행복지역화폐’는 골목상권 뿐만 아니라, 가정경제에도 도움이 되는 1석2

조의 효과가 있다. 1인당 매일 100만원까지 구매액의 10%를 할인 받을 수 있어 4인 가족의 경우 연 480만원의 소득 증대 효과가 유망하다.

아울러 최근 지역사랑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는 전남지역 가맹점도 6만2천개 소까지 늘었으며 종이형 상품권에서 카드·모바일형까지 발행 종류도 확대돼 사용자 편의성이 크게 개선됐다.

주순선 도 경제에너지국장은 “전남행복지역화폐의 사용이 활성화되면 지역 소상공인과 골목상권이 함께 살아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지역 경기 회복을 위해 시·군 지역사랑상품권 구매에 적극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김재정기자

## 5·18기록관, 통합 데이터베이스 구축 본격화

### 400만건 체계적 관리...전국화·세계화에 속도

광주 5·18민주화운동기록관은 올해 5·18민주화운동 41주년을 맞아 기록물을 통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 5·18 전국화와 세계화에 나선다.

이를 위해 통합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시작하고 ‘5·18기록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10주년’의 의미를 되새기는 다양한 행사를 진행한다. 지난해 통과한 5·18특별법 개정안을 기반으로 ‘통합과 소통’의 5·18민주화운동으로 나아가기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한다.

6일 5·18기록관에 따르면 5·18기록관 5·18민주화운동 기록물은 518기록물과 유품 등 문서 4천271권 86만8천904페이지, 흑백사진 2천177장, 사진 1천733장으로 지난 2010년까지 최종 수집돼 이듬해 5월 유네스코에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됐다.

5·18기록관은 올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10주년의 의미 되새기는 특별전시와 학술행사 등을 마련하며, 그동안 안 가라기와 왜곡으로 얼룩진 과거를 정리하고 5·18특별법 개정안을 토대로 화합과 소통의 5·18민주화운동으로 나아가기 위한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있다.

정용화 5·18민주화운동기록관장은 “오랫동안 준비했던 5·18기록물 통합DB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만고유이 90%에 달하는 기록물 보존서고도 확충할 계획”이라며 “연구자들에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기틀을 조성하는 것이 역사적 사명이라 생각하고 통합DB가 완성될 때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진탄기자

5·18기록관은 올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10주년의 의미 되새기는 특별전시와 학술행사 등을 마련하며, 그동안 안 가라기와 왜곡으로 얼룩진 과거를 정리하고 5·18특별법 개정안을 토대로 화합과 소통의 5·18민주화운동으로 나아가기 위한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있다.

정용화 5·18민주화운동기록관장은 “오랫동안 준비했던 5·18기록물 통합DB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만고유이 90%에 달하는 기록물 보존서고도 확충할 계획”이라며 “연구자들에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기틀을 조성하는 것이 역사적 사명이라 생각하고 통합DB가 완성될 때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진탄기자

## 전남 농어민 공익수당 수혜대상자 확대

### 실제 농업 종사자 대상...농어민 삶의 질 향상

전남도는 올해 농어민 공익수당 지원 조건을 세대원 직업에 상관없이 실제 농업에 종사하는 농어민이 지급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설했다.

전남도는 지난해 전국 공익수당 지원 체 중 최초로 농어민 공익수당 지원 제도를 도입했으며 지난해와 동일하게 60만원 상당의 지역화폐를 오는 4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 지급할 계획이다.

지급 대상은 농업·임업 경영 정보를 등록한 경영체의 경영주로 2019년 12월 31일 이전부터 계속해 전남도내에 거주하면서 농업 또는 임업에 종사한 농어민·임업인이다.

단, 농업의 외 소득이 3천700만원을 넘거나 직불금 등 보조금 부정수급자, 공무원·공공기관 임직원,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대상 경영주와 실제 거주를 같

이 하면서 세대를 분리한 경우 등은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지급을 희망하는 농어민은 11일부터 2월 10일까지 마을 이·동장을 통해 시·군 읍·면·동주민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전남도는 농어민 공익수당을 해당 시·군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지역화폐로 지급해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전망이다.

지난해에는 전남도내 농업경영체 경영주 19만1천541명에게 1천149억 원을 지급했다.

소영호 전남도 농축산식품국장은 “농어민 공익수당은 농어민 삶의 질 향상과 농업·농어촌의 공익적 기능을 유지·증진하기 위한 제도”라며 “신청·접수 홍보를 강화해 지급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재정기자

## 1면 ‘2021 이것만은 꼭’서 계속

이에 따라 전남도는 의과대학 신설 혜택이 도민 모두에게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정월 100명 이상을 확보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전남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의과대학이 없는 광역지방자치단체다. 반면, 의료 수요가 높은 고령인구 및 장애인 등 의료 취약계층 비율은 매우 높다.

전국 최초로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전남도는 현재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23.3%를 차지하고 있으며 등록 장애인 비율은 7.5%로 전국 1위다. 열악한 의료 인프라로 연간 약 80만명이 의료서비스 이용을 위해 타 시·도로 가고 있다. 연간 유출 비용만 1조3천억원에 달한다.

강영구 전남도 보건복지국장은 “동·서부권 지역간 거리가 멀고 두 지역 모두 의료체계 구축이 시급하기 때문에 당연히 양 지역에 의과대학이 유치돼야 한다”며 “정부에 두 곳 모두 의과대학을 설치해줄 것을 건의하고 있는 만큼 도민들이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광주매일신문**

“좋은 生活 사랑받는 廣告인내”

가장 알뜰하게 최고의 만족을 드리는 광주매일신문 廣告. 사랑받는 廣告로 마음과 마음의 만남을 소중하게 이어 드리겠습니다.

광고문의 및 출장접수

▶ 광고국/☎ 650-2099  
650-2071~2  
F. 650-2016

▶ 시내지국 및 각 지방지사

**구독신청 배달사고**

문의 650-2022

**부실 채권 못 받은 돈 회수 전문**

**판결문, 공증, 공사대금, 각서 계약서, 임금내역, 각종 채권상당**

선수금 출장비용 없음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할 수 있음

**채무자 재산, 신용, 주거래은행, 차량 등 파악 실거주지 파악, 법인회사 부도시 회수 가능**

연락두절 채무자 파악 개인 법인 신용조사 재산조사만 별도 가능

선수금만 주고 돈도 못 받고 계산분들이 많으나 당사는 여러분의 재산을 회수한 후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사원모집 신입·경력사원 영입팀 / 채권추심팀

▶ 지사오픈 상담 ▶

호남지사 062-417-4717 / 010-3602-6324

**(주)제이엠신용정보**

채권추심 전문법인

**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

이주여성이 낯선 땅에서 위기상황에 처해 있을 때, 8개 국어(베트남어, 필리핀어, 중국어, 영어, 몽골어, 러시아어, 우즈베크어, 프랑스어)로 상담해드리는 **이주여성전문상담기관입니다.**

상담시간 : 오전 9시 ~ 오후 6시

☎ 062)366-1366, 367-1577, 368-1577

**다누리 콜센터 1577-1366 광주센터**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 피해 이주여성에게 필요한 상담서비스를 합니다.

**대명OA**

취/급/품/목

- 복사기
- 컴퓨터
- FAX
- 레이저 및 잉크젯 프린터
- 전산소모품
- 레이저(토너/드럼)
- 카트리지
- 각종 잉크류
- 복사용지
- 팩스용지
- 판매
- 임대
- A/S

**T.375-5880**

세상의 모든 아이들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일시보호, 국내입양 상담**

1976년부터 우리지역에서 발생하는 가아, 미아, 미혼모 아동 및 결손아동을 일시보호 후 친부모를 찾아주거나 국내입양 상담으로 양부모를 결연하여 아동들에게 따뜻한 가정을 만들어 주는 아동복지 전문기관입니다.

일시보호, 국내입양 후원 및 자원봉사 **광주영아일시보호소**

상담문의 062)222-1095, 1096